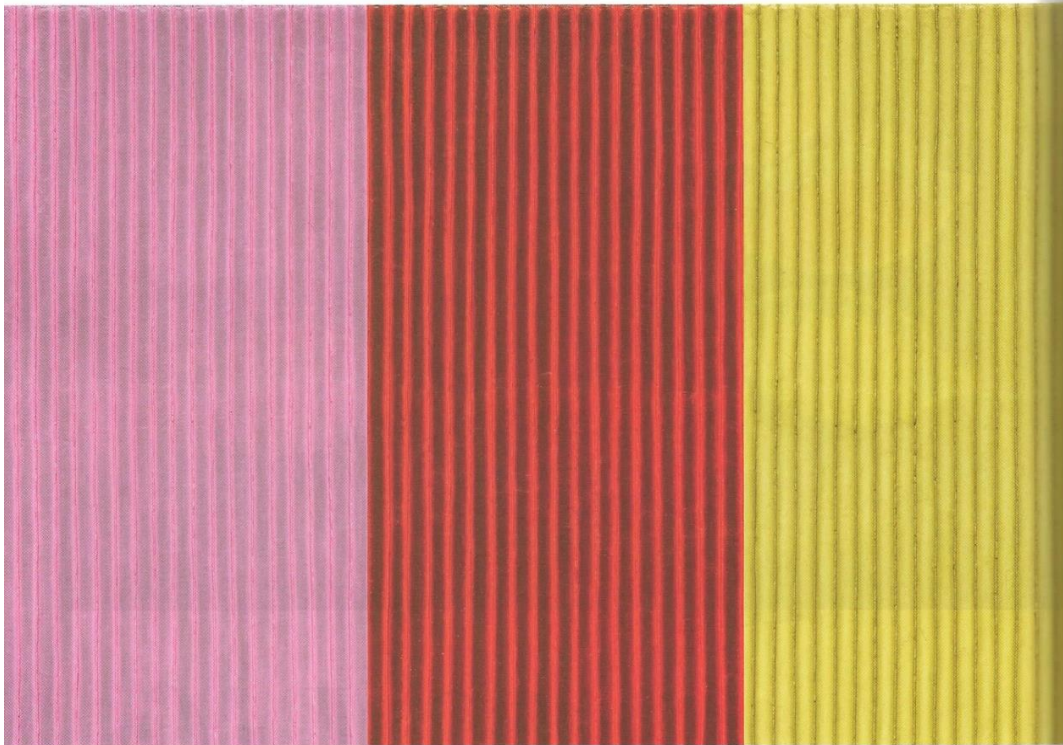




CEO&
2015 5월호

Gallery – PARK Seo-Bo 묘법 (猫法)의 독창성

Gallery



Ecriture(猫法)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on Canvas, 55x40cm, 2014 (좌측부터) No.141206, 141217, 141220, 141222, 141213, 141226

PARK Seo-Bo 묘법(猫法)의 독창성

Editor 정달문 Cooperation 조현갤러리(johyungallery.com)

박서보 작가가 70년대 초부터 일관성 있게 심화해온 '묘법(猫法)'의 최근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층 더 깊어지고 다양해진 색채 사용과 시선을 압도하는 구축적인 화면 구성의 큰 캔버스 작품들로 작가의 파워와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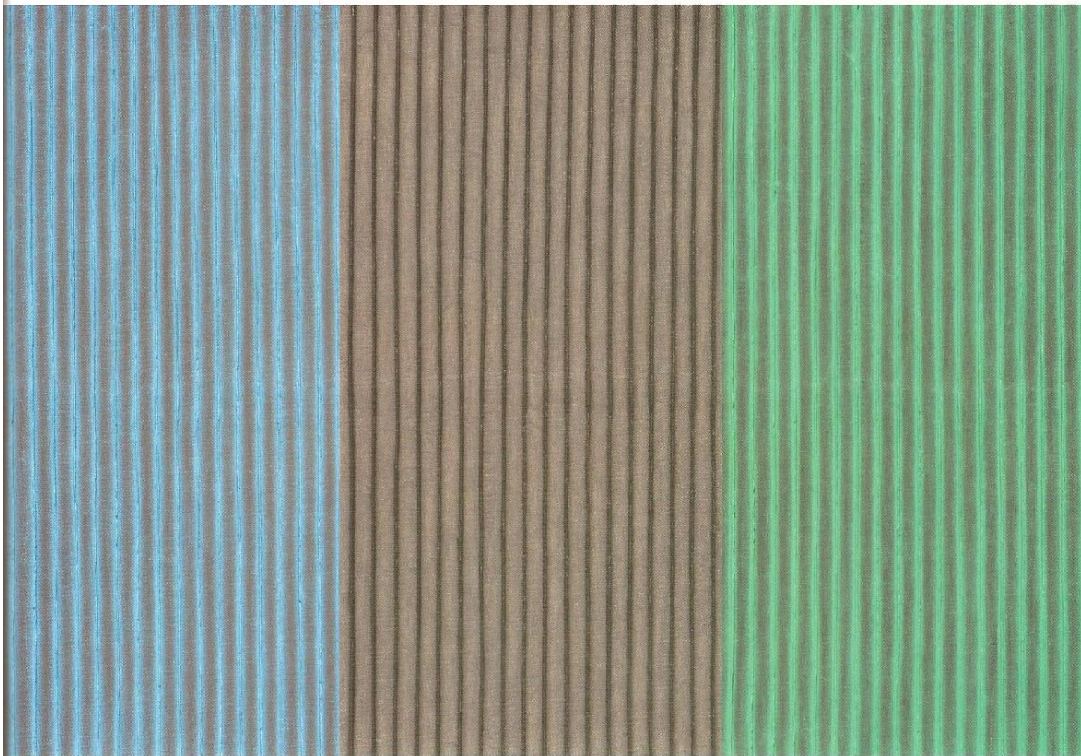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작년 프랑스 대표 갤러리인 파리 페로탱 갤러리에서 본관 전시장을 모두 채운 단독 개인전을 가져 한국미술의 저력을 보여주고 강렬하고 우아한 작품으로 유럽인들을 사로잡아 외국 컬렉터들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한 5월에 있을 뉴욕 페로탱 갤러리에서의 개인전과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미술 특별전인 '단색화'전에 앞서 열리는 국내 개인전이기에 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박서보의 해외전시는 한국 현대미술의 명확한 입지를 세계미술사에 자리매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묘법(猫法)이란 '그린 것처럼 긁는 방법'이라고 풀이되며, 프랑스어 Ecriture는 '쓰기'란 의미를 지닌다. 제목과 같이 '묘법(猫法), Ecriture'은 선을 긁는 행위의 결과물이다. 캔버스를 물감으로 뒤덮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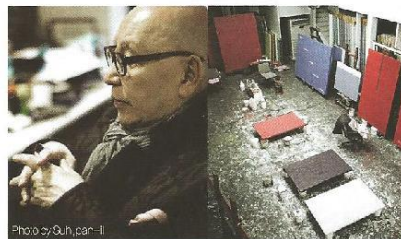


CEO&
2015 5월호

Gallery – PARK Seo-Bo 묘법 (猫 法)의 독창성



것이 채 마르기도 전에 연필로 선을 긋고, 또 물감으로 지워버리고, 디스크 위에 선을 긋는 행위를 되풀이하는 과정의 결과기 바로 작품이다. 1980년대부터는 종이 대신 한지를 사용해보고 있다. 여러 겹의 축축한 한지를 젤 미디어를 써서 캔버스에 정착시킨 뒤, 표면을 다시 스침 안으로 축축하게 만든 후, 손이나 탁대기로 수차례 긋는다. 그에 의하면 '미치 스티이 임분을 끝없이 반복하듯' 똑똑히 반복적으로 계속 긋고 그린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전의 무채색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노톤 화면에서 화려한 색채의 화면으로 변화하게 된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작품 속 선의 높이 또한 모노톤 작품들에 비해 높아져 작품을 옆에서 보면 선의 높이 변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작고한 평균가 이일은 박서보를 가리켜 100년에 한 명 나올지 말지 한 작가라고 평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뉴욕시대의 김환기는 그에 대해 한국 근 현대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크게 기록될 작가라고 말한 바 있다. 조현희랑 부산에서 4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박서보 개인전은 개최한다. 



박서보

192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난 박서보는 1954년 용인대 회화과를 졸업했다. 1997년 까지 중오대 교수, 산업미술학원장·미술내과장 등을 역임했다. 대표적인 전시로는 2012년 대구미술관, 2019년 부산시립미술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프랑스 생타티엔 디프루를 현대미술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 등 유수의 기관에서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 대통령 표창, 문화부 화가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국민훈장 목련장, 서울특별시문화상, 목관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박서보의 작품은 미국 국립현대미술관과 도쿄 현대미술관을 포함해서 다수의 주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